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 위한 국제세미나」

- 주 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일경제
- 후 원 : 한노총, 경총, 한국인정원, 한국심사자격인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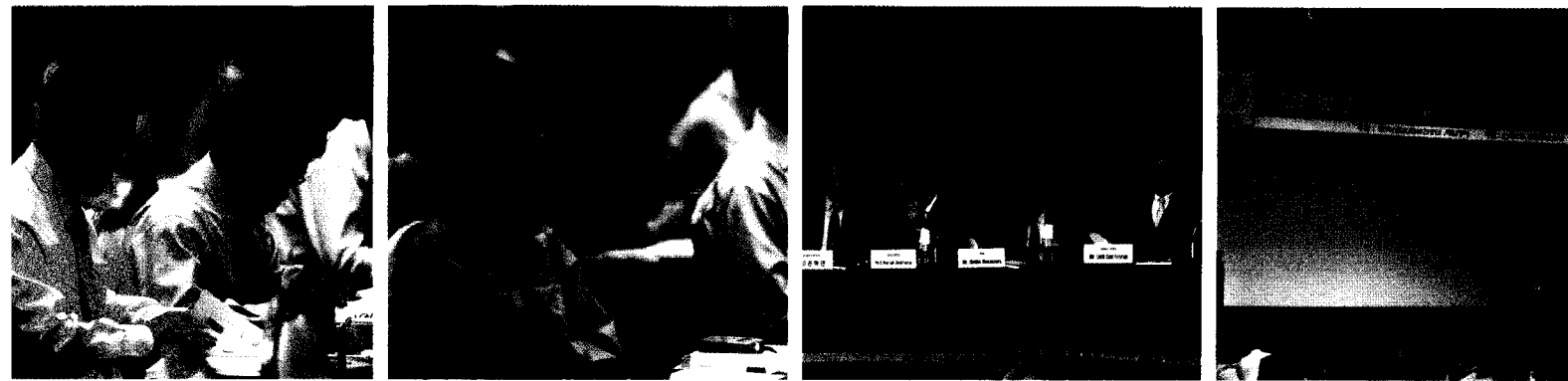
취재 | 임재근 기자

2009년 4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매일경제 주관으로 선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우수사례 발표 및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효과에 대한 국제세미나가 국내 안전보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덴마크의 율릭 단 프리럽(BV 코리아 대표), 일본의 이시다 마사토시(JISHA 화학분야 기술분야 위원), 메르작 벨코드자(베올리아 워터 코리아 기술이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권혁면(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장)은 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효과와 우수사례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OECD국가 중 헝가리 다음으로 많은 67.5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재해자 통계는 근로자수 13,489,986명 중 재해자수 95,806명, 사망자수 2,422명을 나타내 재해율은 0.71이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을 줄이고, 선진안전보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례를 들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산업재해율 감소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이룬 기업 사례가 소개되었다.

한편 권혁면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수는 1,594,793개소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노동부 감독관과 공단의 지도원 수는 1,200명 남짓으로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수가 1,300개소에 달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역설하고 중·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춰 스스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여건이 미약하여 안전보건관리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정부와 전문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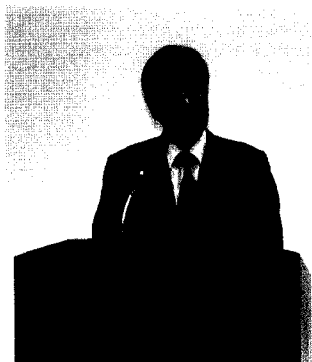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덴마크의 울릭 단 프러럽은 ILO 추산 매년 발생하는 업무관련 사고는 2억 5천만 건 이상으로 하루에 685,000건의 결근이 야기되고 있으며 매일 3,000명이 직장에서 사망(2명/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액은 전 세계 GDP의 4% 정도로 1조 2,515억 5,300만 달러(미화)에 달해 산업안전사고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함을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일본의 이시다 마사토시 기술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 운영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규모 제조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자체 점검"(2004년 2월)의 결과에서는 OSHMS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의 연간 사망천인율은 3.91로 나타나 위험성평가를 운영중인 사업장 4.00,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6.15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메르작 벨코드자 베올리아 워터 코리아 기술이사는 자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소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에서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별도로 자사의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따라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결과, 직원수가 현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기업의 이익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날 좌장으로 참석한 문형남 매경 안전환경연구원장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비취볼 때 우수기업은 사업장내 안전보건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산업재해감소와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소,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추세"라고 이야기 하였다. ☺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일본, 유럽, 아시아 지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공사례와 인증효과를 듣고 토론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경영의 제일 목표를 "안전우선"에 두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재해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제조업, 건설업 등 전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증된 사업장에 대해 인증 전·후 재해를 분석한 결과 약 24%의 재해율이 감소되고 80%의 사업장에서 재해가 줄거나 무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선진국 수준인 0.5%대의 재해율 달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전체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협착, 전도, 추락 등 3대 다발재해를 중심으로 예방노력에 전력질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효과, 우수사례 및 적용사례를 저울삼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활성화되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